도심 천년고찰 봉은사, 이야기로 되살리다



가람유사6
봉은사 Ⅰ·Ⅱ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찬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세트 2만5000원

1200년 봉은사 역사 조명
창건부터 근현대사까지
인물·사료로 풀어낸 사찰史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서울 강남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대 연회 국사가 창건한 이래 왕실의 보호 아래 법등을 밝혀 왔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1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부인 신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역 옆에 재암(齋庵)인 견성암을 건립하면서 왕실 불교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됐다.

견성암은 견성사로 규모를 키워갔고, 1499년(연산 5)에는 마침내 국가가 공인한 정식 사찰로 격상되며 왕으로부터 '봉은사'라는 이름을 하사받는다. '봉은(奉恩)'이라는 이름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가피로 왕과 나라의 은혜를 받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왕실의 슬픔을 불심으로 승화해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봉은사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영진)이 펴내는 〈가람유사(伽藍遺事)〉 시리즈의 여섯 번째 결과물인 '봉은사' 편은 1200년 봉은사 역사와 가람을 수호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람유사〉는 삼국시대 역사와 설화를 담은 〈삼국유사〉의 맥을 이어, 사찰의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엮어내는 작업이다. 2023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화엄사〉 〈은해사〉 〈동화사〉 〈부석사〉 편이 출간됐다.



서울 강남 빌딩 숲에 자리한 봉은사는 1200년 법등을 이어온 가람으로 수많은 설화와 스님, 불자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진 제공=봉은사

'봉은사' 1권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부터 봉은사의 전신인 견성암 건립, 왕실 여인들의 귀의처인 정업원, 능침사찰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 등 조선 불교사의 주요 장면들을 담았다. 또 문정왕후가 허응 보우 대사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며 불교 중흥 정책을 단행했으나,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전한다. 이어 봉은사에 주석한 서산 휴정 대사를 비롯해 벽암 각성, 백곡 처능, 남호 영기 등 선지식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근현대에 이르면 봉은사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선명해진다. 1925년 서울 대홍수 당시 사찰 재정을 풀어 708명을 구한 한암 스님과 청호 스님의 일화, 다래헌에 역경장(譯經場)을 차린 운허 스님과 한글대장경 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실 석주 스님, 다래헌에 머물며 〈무소유〉 등을 집필한 법정 스님, 주지로 재임하며 청년포교에 매진한 광덕 스님, 무분별한 개발 열풍에 도량을 지켜낸 영암 스님의 행적 등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2권에는 〈삼국유사〉와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태고화상어록〉 〈청허당집〉 등 봉은사와 관련된 각종 문헌 기록을 수록해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도 더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가람유사〉는 딱딱한 기록이 아닌 이야기 형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자나 전문가들만 접할 수 있었던 스님과 사찰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 집성하고, 다시 이야기로 풀어쓰는 작업"이라고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천이자, 우리 삶을 불교 이야기에 되비추어보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보살계는 어떻게 살아 움직여 왔나



범망경 보살계의 흐름
법장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4000원

〈범망경〉 주석史 변화 고찰
지의·원효 등 주석서 비교
"삶 속 새롭게 조명되는 계율"

대승불교의 윤리적 토대를 이루는 보살계는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삶을 규율해 온 핵심 규범이자, 동시에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돼 온 '살아 있는 가르침'이다. 〈범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이러한 보살계의 역동성을 사상사적으로 추적하며, 계율을 둘러싼 이해의 지평을 한층 넓혀주는 연구서다.

책의 중심에는 〈범망경〉이 놓여 있다. 〈범망경〉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대표 경전으로, 흔히 '범망계'라 불리는 보살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초기불교의 계율이 개인의 해탈과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범망경〉의 보살계는 중생 구제를 향한 서원과 실천을 전면에 내세운다. 살생과 도둑질 등을 금하는 수준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태도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적 기준으로 읽힐 수 있다.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보살계는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보살계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이다. 저자는 〈범망경〉 해석의 역사, 즉 주석사(註釋史)에 시선을 돌린다. 경전은 언제나 해석을 통해 살아 움직인다. 같은 문장이라도 시대와 지역, 그리고 해석자의 사상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주석사를 살피는 일은 경전의 실제 수용 양상을 밝히는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범망경〉은 대승불교 수행자인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경전이다. 오늘날에도 불자들은 보살계를 수지하며 참다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네 명의 사상가, 지의·원효·법장·태현 스님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장에서는 지의의 〈보살계의소〉를 검토하고, 2장에서는 원효와의 비교를 통해 원효의 주석서에 나타난 지의의 영향을 살폈다. 3장에서는 원효와 법장의 주석서를 비교하고, 4장에서는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를 중심으로 원효와 법장의 영향을 고찰했다.

네 스님은 모두 〈범망경〉을 주석했지만, 각자의 시대적 상황과 교학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지의는 천태 교학의 입장에서 보살계를 체계화하며 수행의 단계 속에 위치시키고, 원효는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계율의 정신을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법장은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보살계를 우주적 연기 속에서 이해하며, 태현은 앞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정밀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처럼 주석은 하나의 '사상적 재구성'으로, 저자는 각각의 주석이 등장하게 된 불교사적 맥락과 사상적 의미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법장 스님은 "〈범망경〉 보살계는 그 시대의 출가자와 불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교의 수행과 가치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변화해 왔다"며 "특히 〈범망경〉 그 자체가 아닌 주석서에서 계율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탁월한 견해"라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율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다뤄 나갈 계획"이라며 "이 책은 그러한 현대적 주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한글세대를 위한 금강경

해인사 팔만대장경 저본 삼아
"누구나 읽고 이해하게 번역"



이토록 명쾌한 금강경
이정서 지음
이른아침
2만2000원

한글세대를 위한 불서를 펴내고 있는 이정서 번역가가 이번엔 〈금강경〉을 우리말로 풀었다. 2000여 년 전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쓰인 〈금강경〉을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저자가 직접 번역에 나선 것.

〈이토록 명쾌한 금강경〉은 '누구나 읽고 깨닫는 우리 시대의 금강경'을 표방한다. 저자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본을 저본으로 원문을 쉬운 우리말로 옮겼다. 1부에는 분절(分節) 구분 없이 〈금강경〉 전체 번역문을 실어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을 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2부에서는 기존 32개 분에 따라 장을 나누고 개별 용어의 의미와 역주를 덧붙였다.

기존 번역서들과의 차이도 눈에 띈다. 저자는 핵심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응(應)' 자를 '응당'으로 번역했다. 요즘 잘 쓰지 않지만 한자어의 고유한 명령성과 응답의 구조를 살리는 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다수 해설서에서 '即(곧 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팔만대장경 저본에 근거해 '則(곧 즉)'으로 표기했다. 저자는 "두 글자는 혼용되어 쓰이기에 그 뜻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고 둘이 똑같은 글자라는 얘기도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의 '즉'을 '即'으로 보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로 해석되는 반면, '則'으로 보면 '제상이 비상임을 알면 그 즉시 여래를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김환기 편집인은 "저자가 지닌 번역의 미덕은 말을 바꾸지 않는 데 있다"며 "설명이 빠진 자리에서 〈금강경〉은 되레 가장 명료하게 스스로를 말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한국불교계 대표 석학 중각 이중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 시리즈 ❸

초기경전 『니까야』로 대승 논서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꿰뚫다!

"중생은 고장 난 생명 시스템이다"

초기경전 『니까야』와
현대의 일반시스템이론을
토대로 새롭게 읽는
『대승기신론』

중각 이중표 지음 | 464쪽
33,000원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이중표 역해
464쪽
3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비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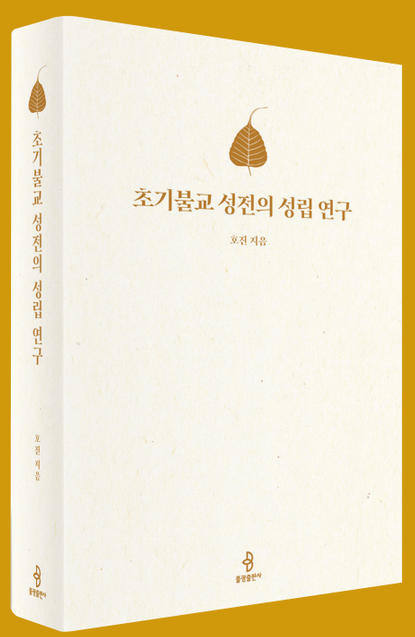
결집의 역사, 성전의 탄생을 밝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들 속
결집의 서사를 걷어내고 재검증한 불교 경전의 성립 과정

"경전은 어떻게 결집되었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료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출가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학 연구에만 매진해 온
한국불교계 대표 학승(學僧)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성과

호진 지음 | 496쪽
35,000원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